한국청소년연구 제7호 1991 겨울

미국에서 본 청소년문제와 대책*

이 병 철**

I. 머 리 말
II. 청소년의 정서불안 문제
III. 청소년의 학업 중도포기 문제
IV. 마약의 사용
V. 10대 미혼모 발생과 Peer Teaching
VI. 청소년의 빈곤과 사치
VII. 맺 음 말

I. 머 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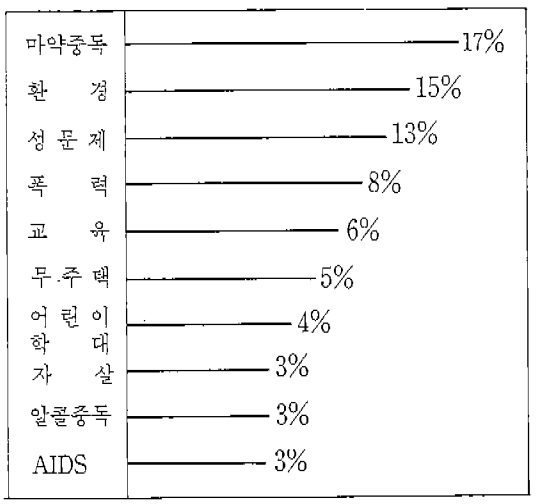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는 80년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는 70년대를 통하여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제일주의를 고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데도 기인한다. 특히 80년대 후반들어서 국제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청소년문제도 국제화 기류를 타면서 마약, 음주, 폭력, 성문제 등이 심각할 정도로 급속히 청소년사회에 파급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들인 미국, 일본 지향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수입영화, 불법비디오, 불량잡지 등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면 보다는 나쁜 행태와 습관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등 선진제국의 청소년문제는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그들의 대처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청소년정책수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1990년에 "청소년 독백프로그램 *Respect Teen Speak for Yourself Program*"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의 10대 관심사는 마약사용(17%), 환경(15%), 성문제(13%)등의 순이었다. 마약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난 것은 현재 미국인 1백명당 1명꼴인 220만명이 코케인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문제가 청소년에게로 전이되고

*본 자료는 필자가 미국 kansas국비 유학중, 틈틈히 모은 청소년 관련보고서, 청소년잡지, 일간신문 등에서 주요내용을 발취, 정리, 요약한 것임.

**체육청소년부 해외협력과 행정사무관

〈표 1〉 미국 청소년의 10대 관심사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문제에는 주로 가족적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생활형편의 곤란,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모, 형제와의 갈등등에 관련된 내용과 주택의 입지 부적절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청소년들이 마약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삼고있다.

청소년 성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10대 미혼모의 발생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상습복용이나 성문제, 폭력등에 휘말리게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청소년 정서문제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 청소년의 마약복용문제, 청소년 학업포기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빈곤과 사치문제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의 정서불안 문제

뉴욕에 있는 벵크 스트리트 교육대학의 크니처 스타인버그, 프라이쉬 교수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국에는 전체 학생수의 약 1%정도인 40만명의 학생들이 정서불안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3-5%의 학생들이 정서불안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

잠재적으로 정서불안 상태에 있거나, 주변여건의 부정적 영향에 따라 정서불안 상태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전체학생의 10-30%가 치료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장애 *serious handicaps*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1975년에 제정된 장애아를 위한 연방교육법에 의거 특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미공법 94-142).

특수교육학회 *NASDSE*의 전무이사 쉬퍼(*Shipper*)가 전국의 특수교육 담당자와 정신의학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외로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정서불안 학생으로 잘못 인식·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밀한 임상평가 절차를 거치지않고 단순히 행동이 거칠다거나, 불손하다거나, 명랑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식의 외견상 태도로 정서불안 상태를 분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1) Knitzer, J., Steinberg, & Fleisch (1990), *At the Schoolhouse Door : An Examination of Programs and Policies for Children with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New York*).

되었다.

선생님들이 학급운영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정숙한 질서를 필요이상으로 강요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정서불안 상태로 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한번 학생이 정서불안 상태에 있는 학생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경우 오직 1% 정도만이 정상교육 과정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따라서 한번 정서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정서불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변 여건조성과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서불안 문제가 중요시 되는 것은 정서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3명중 1명꼴로 정상적인 학년 수준에 맞는 학업진도를 보이며 정서불안 상태에 빠진 청소년중 42%가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다는데 있다.

한편 뉴욕주 심리연구소의 아그네스 위터커 박사가 뉴저지 카운티고등학생 5,596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서불안 청소년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위 블리미어(*Bulimia*: 병적인 기아(饑餓)나 식욕부진 현상), 집중력 부족, 충동적 행위, 계속 먹고 토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터커 박사는 이같은 증세들이 심리학적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그동안 대개 경시되어 왔으며, 특히 집착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생활행태는 그동안에 알려져 왔던 것보다 20배가 높았다고 밝혔다.

〈표 2〉 정서불안상태시 비정상적인 행동

정서불안 상태시 반응행동	전체학생비(%)
갑작스런 체중감소현상	0.2
블리미어	2.5
이유없이 당황하고 불안해 하는 상태	0.6
집 착 증	1.9
심한 우울증	4.0
일반 우울증	4.9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3.7

III. 청소년의 학업 중도포기 문제

미 전국 학생들의 고교졸업율은 87년도에 71.7%, 88년도 7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비교적 졸업율이 높은 곳은 미네소타(90.9%), 노스다코스 (88.3%), 와이오밍(88.3%)등이고, 낮은 곳은 플로리다(58%), 워싱톤 D.C.(58.2%), 죠지아(61%)등이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이거나 플로리다와 같은 유흥휴양지, 사회적,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이완되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역시 학업 중도포기를 많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포기 문제는 미국 전체의 문맹율 증가와 더불어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학업 중도포기 학생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흑인 또는 히스패닉등 소수민족계이거나 빈곤계층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학생들이 미

2)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199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맹율은 약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혼부모로 아기를 갖게 되거나 편모슬하이거나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포기로 인하여 기능적 문맹의 발생으로 정부 조세수입 감소, 취업시 직업선택의 부적격성, 직업안정을 위한 교정등으로 학업포기자 1인당 $7,000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인구 150여만의 대도시인 Kansas시의 경우 교육구에 따라 초·중·고교 중퇴자가 전체학생의 47-57%에 달하고 있으며, 학업 중도포기율이 55%에 달하고 있는 와이안닷드군(郡)에서 한해 학업 중도포기하는 19,000명의 학생들이 끼치는 사회적 손실은 매년 1억 3천 3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ansas시에서는 매년 1천 3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그 사업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업 중도포기 방지 *dropout prevention*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후견인 조직 *Stackholders Committee*을 신설하여 점검한다. 학업포기 방지업무의 내용은 잠재적으로 학업 중도포기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사전 파악하는 일과 학문적·사회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안된 포괄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하는 포괄적인 사례관리시스템 *comprehensive ca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한다.

(2)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정서장애자, 10대 미혼모, 마약, 알콜중독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alternative schools*에 대한 자금과 인력지원을 강화하여 현재의 600명 정도 수용규모를 늘려 특수학교 입학 대기중인 50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모든 학교는 상담전문가를 전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에는 오직 6개 국민학교에만 전임 담당 전문가가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도 38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한다.

(5) 교육장은 학군내의 기업체들이 산학연계 프로그램 *work-studyprogram*이라든가 대학장학금 *college scholarships*제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IV. 마약의 사용

1. 캔사스주 위치타시 교육위원회 조사보고

미국 중부 캔사스주의 위치타시는 인구 30만 정도의 공업도시이다. 위치타시교육위원회는 90년 10월경 2만 6천명의 중·고등학교 학생(5-12학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술, 담배 등의 습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에서 설문지 회수율은 80%에 달하여 20,45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에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1주일에 1번 정도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으며, 학생들의 1/6은 가끔 마리화나(대마초)를 사용하고 20%에 달하는 학생들은 매일 담배를 피

〈표 3〉 청소년의 흡연실태

(단위 : %)

학 년	전혀안피움	가끔피움	매일피움
5	94.7	1.0	1.1
6	86.3	2.6	3.1
7	77.6	5.2	5.4
8	65.1	7.0	11.6
9	64.2	5.5	15.8
10	61.9	5.3	18.5
11	61.3	5.8	19.8
12	63.3	4.4	19.7

〈표 4〉 청소년의 코케인 사용실태

(단위 : %)

학 년	전혀안피움	가끔피움	매일피움
5			
6	97.4	0.2	0.9
7	96.0	0.8	1.5
8	93.5	1.4	2.4
9	92.3	1.1	2.9
10	91.1	1.7	2.4
11	90.9	1.2	2.5
12	91.6	1.1	1.8

〈표 5〉 청소년의 음주실태

(단위 : %)

학 년	전혀안함	가끔음주	매일음주
5	88.0	1.3	1.1
6	79.6	2.4	2.0
7	67.5	4.5	2.9
8	51.8	8.4	5.0
9	43.4	13.1	4.8
10	34.3	16.3	3.8
11	31.1	20.7	3.7
12	24.1	26.4	3.2

〈표 6〉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연실태

(단위 : %)

학 년	전혀안피움	가끔피움	매일피움
5	97.8	0.3	0.8
6	92.4	1.2	1.6
7	87.8	2.5	2.5
8	81.8	4.3	4.3
9	76.0	5.6	5.3
10	74.8	5.6	6.1
11	70.9	6.4	5.5
12	68.9	5.6	4.5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학생의 90% 이상이 코케인을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2/3는 마리화나나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25%의 고등학생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지어 5학년 학생들 중 상당수가 담배, 술, 마약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오르기 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주일에 1번이상 코케인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학생수가 고교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마약사용이 습관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16-7세경에 많이 학업을 포기 퇴교를 하여 설문응답에서 누락되었거나, 둘째로 고교 상급학년때 마약과 술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나쁜 습관을 고쳤거나, 셋째로 16-17세경에 마약 복용 습관을 자기의지로 극복해 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9년의 경우 시교육위원회는 마약 또는 음주

문제가 있는 1,400여명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모두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주선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1988년 미시건대학에서 미 전국 16,300명의 고등학교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과 약간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치타시의 조사결과가 담배, 술, 마약과 관련하여 미시건 대학의 조사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일 마약을 상용하는 학생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전국 고교 상급학생의 평균치는 2.7%인데 비하여 위치타시의 경우 4.5%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일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케인의 경우에는 전국 고교 상급학생중 매일 코케인을 상용하는 비율이 평균 0.2%인데 비하여 위치타시의 경우에는 1.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교육위원회의 조사

96년 올림픽이 개최될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교육위원회가 전국 38개주의 958개 학교 12학년(16세) 296,180명의 백인학생과 59,898명의 흑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인학생들이 흑인학생들 보다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케인 구입에 대한 질문에서 흑인학생들은 15%가 코케인 구하기가 쉽다고 답변한 반면에 백인학생들은 오직 8%가 코케인 구입이 용이하다고 답변하다.[3] 12학년 학생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흑인학생들의 4%는 지난 1년간 적어도 1번이상 코케인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백인학생들은 7%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코케인 사용빈도에 대하여 흑인남자학생 3%와 백인남자학생 2%는 적어도 1주일에 1번이상(자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1주일에 또는 하루에도 3번이상씩 사용(매우 자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자학생의 4%는 코케인을 적어도 1달에 1번이상 사용(가끔)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리화나 사용에 대하여 흑인 남자학생 11%와 백인 남자학생 12%는 "자주"사용한다고 하였다. 마리화나를 "가끔" 사용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백인 남자학생은 29%, 흑인 남자학생은 17%이며, 이는 고교전체 백인평균 24%, 흑인평균 1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2학년생들의 마리화나 흡연이 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음주에 대한 질문에서 흑인남자 학생 14%와 백인남자 학생 17%는 "자주"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가끔" 음주를 한다고 답변한 12학년 백인 남자학생은 65%에 달한 반면 12학년 흑인남자학생은 37%에 불과하다. 고교전체 평균을 보면 백인남자학생은 57%인 반면 흑인 남자학생은 29%에 머물렀다.

술, 마리화나, 코케인 등에 대한 습관성 행태에 대한 조사에서, 술의 경우 백인남자 12학년생의 경우 42%, 흑인남자 12학년의 경우 22%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마리화나의 경우에는 백인학생의 23%, 흑인학생의 15%가 코케인의 경우에는 백인학생 7%,

3) 코케인에는 파우더 형태로 된 것과 피우는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 이중 후자는 통상 크랙*Crack* 이라고 불리운다.

흑인학생 5%가 습관적으로 복용 또는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버지니아주 휠스처지의 페어팩스 병원의 조사

페어팩스 병원의 리차드 슈왈쯔 박사가 중산층 10대 자녀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중 130명이 한번이라도 크랙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70%가 향후 마약권유가 있을 경우 거절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들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마이크로 웨이브나 스토브등을 사용하여 코케인을 말아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상테스트 결과 크랙을 50회이상 사용한 청소년 3명중 1명꼴로 기억상실증을 경험하였고 이보다 적게 피운 사람들도 10%정도가 이러한 증세를 나타냈다. 마약사용자의 80%가 14살 이전에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이 마리화나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방의회 상원 마약·알콜 위원회 조사보고

상원 마약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청소년 마약사용은 5년전에 비하여 약 6.7%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포기나 마약사용의 빈도수 증가등은 고려하지 않았음). 그러나 치명적인 자극제인 PCP의 경우 88년에 0.3%에서 89년 1.4%로 증가했다. 한편 크랙 코케인은 88, 89년 모두 3.1%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도포기율을 고려하면 크랙 코케인 사용 청소년은 전체 10대의 27%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마약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코케인을 비롯한 마약구입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다고 한다. 조사대상의 58%가 마약구입이 쉽다고 응답하였다. 술의 경우 60%의 고등학생이 음주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33%는 조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폭음 *binge drinking*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18.9%의 고등학생들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였다.

5. 청소년 마약사용에 대한 대책

Kansas시 존슨郡 마약·술 위원회 *The Drug and Alcoholism Council of Johnson County*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방송,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한 것이 청소년들의 마약복용을 억제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담배와 술을 끊거나 자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술, 담배,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이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 교육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들이 마약, 알콜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 알콜 퇴치 프로그램 *drug and alcohol prevention programs*을 통하여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술과 마약에 연루되지 않도록 레저, 스포츠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

②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단기 알콜중독치료센터를 건립한다.

③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마약문제 교육·홍보를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④ 州정부의 술판매 제한법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V. 10대 미혼모 발생과 Peer Teaching

미국 각지에는 10대 미혼만을 위한 특수 고등학교 (소위 *Mother High*)가 별도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Kansas City의 경우 4개의 10대 미혼모 학교가 있는데 그 각각은 교장을 포함하여 교원 7명으로 구성되어 60명의 10대 미혼모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학교 1개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 정부는 18만 달러를 보조하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주 정부는 이중 1개교를 폐교조치 하고자 한다. 주 정부는 이 학교가 특수학교로 분류·설립될 당시인 1967년에는 10대 미혼모는 정신적인 장애자의 하나로 간주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10대 미혼모가 더이상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폐교될 경우 재학중인 10대 미혼모들은 다른 구역의 특수학교로 또는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10대 미혼모 학생들은 그들이 일반고등학교로 갈 경우 다른 학생들의 눈총,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하며 학업을 포기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0대 미혼모 학교를 비롯, 자살기도등 정서불안자, 마약 상습복용자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학생들중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일반학교를 순회하며, 일반 중·고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그것이 끼치는 해악을 실감케 함으로써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유혹에 의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면으로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VI. 청소년의 빈곤과 사치

1. 청소년의 빈곤문제

콜롬비아대학교 부설 국립 빈곤어린이 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에 의하면 87년의 경우 미국에는 6세이하의 빈곤가정 어린이가 5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4]

빈곤가정 어린이들은 대체로 학업성취도 낮고, 빈번히 유급의 대상이 되며, 학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기도 하며, 10대 미혼모 발생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광범위한 건강 보험의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확

4) 미국가정에서 빈곤가정은 납세전 소득액, 가족규모 그리고 생활비 체련변화 등에 근거를 두어 판정되는데 1989년의 경우 3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 $9,890이하, 4인 가족의 경우 $12,675이하면 빈곤가정으로 보았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빈곤가정 구성원은 3,250만명에 이르고 이중 18세 이하는 1,300만명, 7세 이하는 5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상대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실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실업보험제도의 적정화, 주택보급 및 불량주택 개량에 의한 환경개선, 10대 임신방지를 위한 특별교육·홍보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 청소년의 사치·과소비 문제

1950년대에는 청소년들이 찢어진 청바지에 다 낡아빠진 하와이언 셔츠, 그리고 다 헤져서 상표조차 알아보기 힘든 테니스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요즈음 미국의 일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일부 청소년들 못지 않은 사치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나이키 상표의 잠바를 입고가던 한 청소년이 백주에 대로상에서 살해당한 일이 있다. 살인자는 단지 나이키 상표의 잠바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사치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지만 사회적 경험이 많지않은 자녀들은 쉽게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자 하지않는다. Kansas시 고급 주택가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의 말을 빌면 청소년들은 자기의 복장을 친구 또는 또래집단과 비교하며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옷을 입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거나 입고있는 것과 같은 것을 갖거나 입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한편,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극히 적은 편이다. "어째서 아이들이 루이스뷔똥 핸드백을 갖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유행을 따르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의 부모들은 불평을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우습게 보거나 놀림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주 유명 디자이너의 핸드백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하고, 똑같은 상표의 옷이라도 할인판매점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이 낫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따라서 유명브랜드 옷을 사기위하여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유명브랜드 선호경향이 단순히 다른 학생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한편, 이러한 고급 옷 착용 패턴을 거부하고 검정색 등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서 반항아적인 이미지 *rebel image*를 풍기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치풍조 현상은 중산층 이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경우에도 별반 다를게 없다. 하다못해 연방 급식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있는 학생들은 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학생들까지도 유명 브랜드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중고물품상에서 옷을 사입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런 옷을 입고다니는 태도에 대하여 좋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고 다님으로서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의 이와같은 태도는 현재 미국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옷 잘입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협박, 폭력, 심지어는 살인행위가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만약 불량배들이 마약 구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면 옷을 잘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1차적인 표적이 된다.

때로는 청소년 자신이 입고 다니는 값비싼 옷, 신발, 핸드백 등을 저당 잡히고 마약,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금이빨, 금목걸이, Boom Boxes를 비롯하여 리복, 나

이키 등 고급신발을 신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곧바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 때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료들로부터 위협 또는 협박을 받기도 한다.

이와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복장규정 *dress code*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착용해서는 안되는 물건, 입어서는 안되는 옷 종류들을 일일히 열거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시의 고등학교들은 특히 유명상표가 붙은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Guess 청색 재킷, 아디다스 운동화, Marc Buchanan 가죽코트 등이다. 복장규정 준수에 의하여 점잖고 수수한 복장의 생활스타일이 호사스런생활 스타일보다 낫다는 것과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볼티모어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죽옷, 금목걸이, 디자이너 제작 조깅복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복장규정은 13명의 중·고등학교, 4명의 교장, 3명의 학부모, 3명의 평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속옷을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행위, 좋지못한 내용을 인쇄한 T-셔츠, 잠옷, 수영복 차림의 상의 *tank tops,flip -flops*, 스판덱스 체육복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준수된 이후 볼티모어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절도행위가 1988년에 23건에서 1989년 1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값비싼 유명상표의 옷을 걸친다든가, 번쩍거리는 금장식을 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신경을 쓰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이러한 복장규정이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이 규정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의 복장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함으로써 복장자유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복장규정이 때로는 청소년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복장규정의 제정과 준수에 의하여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흡연하고자 하는데 대한 수단을 제거한다는데 있다. 고급 스포츠복 판매점들에 의하면 많은 수의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담배 등을 몰래 구입하기 위하여 한해 $5,000이상의 고급 스포츠복등을 저당 잡히거나 팔아버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유명상표의 옷들은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Ⅶ. 맺 음 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수립에 있어서 외국의 제도를 검토·수용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청소년 문제상 차이점을 검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함은 말할나위도 없을 것이다. 본 자료는 미국의 청소년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미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청소년관련 연구보고서, 잡지, 일간지 등에서 미국의 청소년문제와 대책에 관한 내용을 발췌, 정리, 요약한 것이다.

미국에서 청소년 성폭력, 10대 임신, 청소년의 사치와 빈곤문제 등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그리 심각한 상황하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피해자 개인의 보호라

는 차원에서 미국사회가 보다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와 특징적으로 차이나는 미국의 청소년 문제는 역시 마약사용과 40-50%에 달하는 청소년의 학업 중도포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청소년의 학업 중도포기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은 것은 유급제도의 엄격한 적용등 미국의 교육제도에 그 근본원인이 있지만, 학업 중도포기가 청소년 마약문제와 얽혀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는 데에 미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근래에 들어 청소년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체육청소년부등 관계기관, 단체등이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은 바람직한 청소년상의 정립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